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에 '전북 익산형' 선정

농민 참여 전국 유일 농식품 상생모델로 산업부 평가 2019년 논의 시작 후 상생협의회 등 준비 걸쳐 '결실 하림푸드·20개 국식콜 입주기업 등, 공동이익 실현 생산 1조3428억원·취업유발 8640명 등 파급 효과

전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2개의 일자리사업이 추진돼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커다란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익산시(시장 정현웅)는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제8차 심의 위원회에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투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노·사·지역주민 등과 고용·투자·복지후생 등의 협의를 기반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농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연계기관 등 노·농·사·민·정의 다양한 주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각 참여 주체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상호협의를 통한 상생모델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하기로 했다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전문가 컨설팅, 공론화 토론회, 상생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탄탄한 준비를 거쳐 4년여 만에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심의회에서 민간 합동지원단의 타당성 평가결과, 상생 협약내용, 사업 지속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선정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전북도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를 피력하고 익산시는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전북 익산형 일자리의 타당성을 제시하며, 전북도-익산시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는 (주)하림푸드와 (주)하림산업이 2025년까지 총 3,915억 원을 투자해 식품 가공 공장 및 물류센터 등을 구축하고, 64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대규모 사업이다. (주)하림푸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내 5만3,623㎡ 부지에 2,688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 식품 가공 플랜트를 설립하고, (주)하림산업은 익산 제4산업단지내 2만 4,061㎡ 부지에 977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 구축, 즉석밥 생산라인 증설에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하림푸드와 (주)하림산업은 2025년까지 즉석밥 1억2,000만 개 생



1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과 정현웅 익산시장, 김홍국 하림 회장 등 참석자들이 전북 익산형 일자리모델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선정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산, 공장 준공 후 생산이 본격화 되는 2027년까지 FD상품·미트스낵·속성 햄 등 누적 4억5,000만여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신선한 원재료를 지역에서 조달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는 다년간의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 소득을 높이며,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참여주체 간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익산형 일자리의 핵심이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의 참여주체간 상생요소로 농가-기업 상생부문은 (제)익산푸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생산자조직-식품기업 간 다년간 공

급·조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 소득 보장, 기업은 고품질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확보하며, 향후 참여기업의 익산산(産) 농산물 사용 비중을 2027년 50%(8만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계약재배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 차액을 지원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부문은 (주)하림푸드·(주)하림산업과 협력기업으로 참여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20개사 간 공동유통·공동마케팅·공동구매로 비용을 절감하고 대·중소기

업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실현하며, 하림 주도로 상생협력기금을 5년간 50억 원을 조성해 중소 농식품기업 역량 강화, 근로자 복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 상생부문은 기업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체계·유연근무 도입, 근로자는 교육훈련 참여, 분규자제 협조와 근로조건 개선에 공동 노력해 나간다. 지역 상생부문은 원광대를 비롯해 기업, 지자체 등 사업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농식품 분야 공동R&D, 전문인력 양성,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선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미

래유망식품기술 촉진 기반구축, 맞춤형 비즈니스사업 지원 활성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인프라구축, R&D, 근로조건 개선 등 총 3,692억원 규모의 34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전북 익산형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선정에 한바탕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과 직결된 전북 익산형 일자리를 전국적인 상생모델로 성공시키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웅 시장은 "4년여간 준비해온 전북 익산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북 익산형 일자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익산을 대표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홍국 회장은 "하림그룹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하림의 노하우와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전북 익산형 일자리를 농식품산업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역농업네트워크협의회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조3,428억원, 부가치 4,479억원, 취업유발 8,640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익산=이재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사장 신순철)과 함께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정읍시 소재,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초의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

'1894년 그날,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다'

오늘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129주년 기념식 올해 새로 마련 '유족 등록통지서 전달식'도 함께 진행

고 있다. 올해는 '1894, 그날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지난해 5월에 개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연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최초로 대승을 거둔 정읍 황토현전적

(사적) 일원에 조성된 곳으로 약 30만㎡ 부지에 추모관 전시관 연수동 캠프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 앞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애도하고 기리는 추모식을 진행하고 분석에서는 극단 '성남동'의 선언 퍼포먼스 '그날의 외침'으로 행사 시작을 알린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를 소개하는 주제 영상 상영, 개식 선언, 국민외례, 기념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 증서를 전달하는 '유족 등록통지서 전달식', 동학농민군 편지 낭독, 축하 영상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작현대무용단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긴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정읍사에서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축제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와 올해 새롭게 마련한 '유족 등록통지서 전달식

을 함께 진행해 대국민 화합의 장을 만든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745명과 유족 1만2,962명을 찾아 유족으로 등록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족,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캠페인